



특집

PET용기업계



김태길

(사)한국PET용기협회 전무이사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하였던 새 천년의 첫해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신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PET용기업계와 재활용업계는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나 새로 맞이하는 2001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PET용기 제조업계와 재활용업계의 2001년도 를 전망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한다.

PET용기 업계

1999년, PET용기 업계는 몇 차례의 원료가격 인상이 이어졌고 상압병(특히 식용유, 간장, 세제류병)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 판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성수기 중 소형병의 수요확산, 일정 물량의 수출 지속 등으로 판매량은 예년과 같이 증가되어 이제 식·음료용기시장의 35%를 확고히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맞이하는 2001년은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불안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호식품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음료의 소비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PET용기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생수병의 수요도 담보 내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측면을 보면 기존 업체의 시설증설과 함께 신규 대기업의 PET용기 시장 참여로 공급능력은 약 10%이상이 증가되어 시장은 매우 혼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업계는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업체간의 정보와 기술을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상호신뢰를 통한 업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동시에 위와 같은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체수요를 적극 개발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용량과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PET병 재활용 업계

사업시작이 일천한 PET병 재활용 산업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매년 재활용량이 꾸준히 증가되어 작년에는 총발생량의 약 50%를 상회하는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T용기업계

이처럼 PET병 재활용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이 업계도 수거량이 부진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설비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수거 물량이 부족하여 설비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형편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된 폐PET병의 수거 체계 확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거가 되더라도 일부 수량이 무분별하게 중국 등지로 유출되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국내 PET병 재생업계는 원료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민간수집상, 지방자치단체, 재생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수거체계를 정비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물동량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2003년부터 시행예정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소비자, 생산업체, 정부, 3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로써,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의 모든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수거량을 조사, 공표하도록 되어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의 민간수집상을 통제하여 물동량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 PET병 재활용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40여개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는 수거물량에 대한 원료부족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난립되어 있는 재생업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Mechanism)에 따라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즉 PET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PET용기협회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비교적 생산규모가 크고 건실하며, 꾸준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재생업체에 선별적인 지원을 통하여 10~15개 정도의 적정한 재생업체가 중점 육성되도록 대안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용기 제조업체의 의무사항중의 하나인 이용 목표율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재생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위탁처리 수수료를 활용하여 PET용기 제조업체와 PET병 재생업체와의 계열화 사업을 2001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